

민선 7기 충남도, 복지·경제 분야에서 성과 저출산 극복·순환 경제



1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2 충남도청사

4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양승조 충남도 지사의 지난 2년간 최대 관심사는 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양 지사는 지난 6월 23일 도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2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보건·복지 분야를 앞세웠다.

2018년 취임사에서 밝혔듯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어르신이 행복한 충남·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실현하는 것이 도정의 밑바탕이 됐다. 이러한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출산보건복지실을 신설해 도정을 구체화했다.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충남형 아기 수당인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해주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출산과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 평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26명이 혜택을 받았다.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 뒤 자녀 두 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충남형 공공 임대아파트도 올해 첫 삽을 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본 소득 성격의 농민수당(연간 80만원) 지급과 75세 노인 교통비 무료화도 추진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순환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1천400여개 기업으로부터 6조7천여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인 투자 실

적도 전국 3위에 올랐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성적이다.

좋은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지난해 도내 고용률(63%)은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주요 성과다.

충남도는 민선 7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문화체육 등 3개 분야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를 서해안 거점 도시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년간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민선 7기 성과 창출을 위해 남은 2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